

‘K-주차 표준’ 만든다... AI 통합관제로 스마트시티 공략

혁신기업 돋보기
대흥정보 박기범 대표
 제조사 달라도 주차장 통합 관리 ‘이기종 통합’ 특허로 윈스톱 제공 27개 지자체 공영주차장서 운영 AI 차량판별 관제 20여곳 상용화 남양주시 출차시간 27.9% 단축 민간·글로벌 스마트주차 시장 공략



박기범 대흥정보 대표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본사에서 ‘통합주차정보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메인비즈협회

서울서초구가 구축한 주차포털에 들어가면 구내에 있는 31곳의 주차장 뿐만 아니라 이들 주차장의 실시간 현황을 매우 혼잡·혼잡·보통·여유 단계별로 한 눈에 볼 수 있다. 주차장 이용자를 위한 사전 결제, 미납 요금 결제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 신청 등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특정 업체 솔루션을 막기 위해 주차장의 기계장비 등을 4-5개 회사가 공급해 설치하고 있는게 일반적이다. 이때문에 각각 다른 회사의 장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운영·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쓰는 애플리케이션

이션(앱) 따로, 주차단속 앱 따로, 행정업무 등을 위한 앱 따로 등 여간 불편한게 아니다. 게다가 차량 출입과 출차, 주차료 정산, 제납액 징수, 수익금 관리 등을 하는데 사람의 손도 적잖이 들어간다.

메인비즈(경영혁신) 인증등을 받은 스마트 주차 솔루션 전문기업 대흥정보는 이런 차원에서 대한민국 주차의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다.

박기범 대흥정보 공동대표는 28일 “2016년에 설립한 대흥정보는 단순 번호판

인식·요금정산 소프트웨어 업체를 넘어 AI 기반 차량 행동 분석·실시간 데이터 집계·클라우드 통합관제를 하나의 플랫폼에 담아낸 ‘도시 모빌리티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흥정보의 핵심 제품인 iNerv 시리즈(통합주차관제·모바일·정산·비대면 자격 확인)는 서초구를 비롯해 현재 전국 27개 지자체 공영주차장이 도입·운영하고 있다. 또 AI V-Square(AI 차량판별·영상 분석 통합 공영주차장 관제 솔루션)는 서

을 동대문구를 포함한 20여개 현장에서 상용화돼 있다.

이는 대흥정보가 보유한 국내 유일의 ‘이기종 주차장비 통합 프로토콜’ 특허가 있었기에 가능하다.

박 대표는 “주차 기계장비와 관련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면 현재 국내 시장은 연간 약 2800억원 규모다. 공공분야에서 스마트주차장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것이 우리 회사다. 지금은 공공분야 추가 확장과 함께 민간분야까지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흥정보의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이용해 공공주차장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는 약 10% 수준이다. 10억원 가량의 시스템 구축 비용과 유지 관리비 등을 지불할 능력을 갖춘 지자체는 사실상 대도시권이 대부분이다.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공공주차장 대부분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차장은 입차보다 출차가 핵심이다. 빠르게 정산을 하고 차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주차장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회사의 통합시스템을 사용하면 사람이 관리할 때보다 주차 시간을 20% 이상 줄일 수 있다.”

실제로 대흥정보의 iNerv를 도입한 경기 남양주시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합 시스템 도입 이후 출차 시간이 평균 27.9% 단축됐다. 또 연료비 절감 편익은 연간 약 2억6000만원, 대기오염 절감 편익은 연간 37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흥정보는 지난해 18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설립 이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은 시장 성장률(연평균 약 12%)보다 높은 25%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박 대표는 “우리는 주차장 관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도시가 숨쉬는 방식을 바꾸는 AI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다. 공공 스마트주차를 넘어 도시 모빌리티 인프라 전체를 재설계하는 등 스마트시티에서 핵심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흥정보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체비도 갖췄다. 2030년 기준 글로벌 스마트주차 시장은 약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대흥정보 K-스마트 주차 시스템’으로 세계 시장을 노크할 날도 머지 않았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고유가 지원금, 골목상권 매출 10.6% ↑

중기부, 소상공인 16만개 매출 분석

총 6조원 가량에 이르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골목상권 매출을 11% 가깝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 경남, 대구, 인천 등에서 매출 증가 효과가 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16만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올해 5월18일부터 6월7일까지 3주간 전국 사업자의 매출 변화를 전년 동기과 비교·분석해 28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 이후 이들 사업자 평균 매출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10.6% 늘었다. 지급하기 전 주에 비하면 2.7% 증가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효과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모두 두에게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경남(14.7%), 대구(14%), 인천(13.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증가폭이 가장 낮은 제주 역시 5.2%의 매출 증가를 보이며 전 지역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소상공인 주요 업종별 매출도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물가와 밀접한 소매업(16.4%)과 교육서비스업(11.2%)은 전체 평균을 상회하며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예술·스포츠·여가업은 4.6% 증가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폭을 보였다.

전통시장에서도 뚜렷한 매출 증가 효과가 확인됐다. 부산 동구 수정전통시장(123.7%), 강원 동쪽바다중앙시장(114.8%), 경남 삼천포중앙시장(114%)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호 기자

LX하우시스, 온실가스 9.5% 감축

15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LX하우시스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을 전년보다 9.5% 가량 줄이는 등 친환경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LX하우시스는 지난 2012년 인테리어 업계 최초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와 중장기 전략을 담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선보인 데 이어 올해 15번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환경 분야에선 시설 개선 및 적극적인 에너지 사용량 관리 활동 등에 힘입어 의미 있는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LX하우시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0만 2737톤(t)으로 전년(2024년)의

11만3473톤보다 약 9.5% 줄었다.

사회 분야에선 기존의 동반성장 활동에서 한 단계 진화해 협력사의 환경경영 개선을 돕고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밀착 관리를 시행했다. 사내의 인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자체 인권 정책을 공개하고 고충처리 채널을 정비하는 등 인권경영 체계도 대폭 강화했다.

지배구조 분야에선 전사적 반부패 위험 평가를 새롭게 도입해 준법경영 시스템을 강화했다. 더불어 ESG위원회의 역할을 환경·안전 중장기 목표 및 탄소중립 등 주요 ESG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최종 승인’ 기구로 권한을 확대해 거버넌스의 실효성을 극대화했다. /김승호 기자

BYD, 전기 중심 PHEV로 韓시장 확대

부산모빌리티쇼서 씨라이언 6 공개 DM-i 기술로 전기차 같은 주행감 일상 주행 80% 이상 전기모터 활용

BYD가 기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기차 중심의 새로운 전동화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 최근 국내 시장에 공개한 PHEV 시스템 DM-i(Dual Mode Intelligent) 기술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BYD코리아는 지난 2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6 부산모빌리티쇼’ 프레스테이에서 PHEV 모델 BYD ‘씨라이언 6 DM-i’를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DM-i의 핵심은 ‘전기 중심(Electric First)’ 설계다. 일반적인 하이브리드가 엔진을 중심으로 모터를 보조 동력으로 활용하는 반면, DM-i는 대용량 배터리와 고성능 모터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주행을 전기로 수행한다. 실제로 일상 주행의 80% 이상을 엔진 개입 없이 전기모터만으로 달릴 수 있어 전기차와 유사한 주행감과 높은 경제성을 제공한다. 과거 PHEV이 높은 가격, 라인업 부족, 충전과 주유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부산모빌리티쇼’에서 공개된 BYD 씨라이언 6 DM-i. /차원정 기자

를 병행했던 번거로움을 완벽하게 해결한 것이다.

주행 상황에 따라 동력 방식도 자동으로 최적화된다. 배터리 잔량이 낮으면 엔진이 발전기 역할을 하는 직렬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해 모터를 구동하며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다. 급가속이나 고속 주행에서는 엔진과 모터가 함께 작동하는 병렬 하이브리드 모드로 전환돼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또 고속 정속 주행에서는 엔진이 직접 바퀴를 구동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이처럼 다양한 구동 방식을 상황에 맞게 전환하는 것이 DM-i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이다.

성능도 뛰어나다. DM-i 차량은 한 번 충전과 주유만으로 1000km 이상의 주행

거리를 구현했으며, 자체 개발한 전기모터는 97.5%의 높은 효율을 달성했다. 또 한 자체 개발한 ‘샤오윈’ 터보 엔진은 열 효율 40.12%를 기록해 일반 가솔린 및 디젤 엔진보다 높은 효율성을 확보했다.

기존 PHEV의 약점으로 꼽히던 충전 문제도 개선됐다. DM-i는 DC 급속충전을 지원해 전기차 수준의 충전 편의성을 제공하며, 3.3kW V2L 기능을 통해 외부 전자기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BYD는 2008년 세계 최초의 양산형 PHEV인 F3DM을 출시한 이후 18년간 하이브리드 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누적 주행거리 300억km를 통해 기술력을 검증받았다.

/왕성운 기자 ysw@

LS일렉트릭, 美 전력사업 확장 속도

2500억 투입해 현지 생산거점 확대

LS일렉트릭이 미국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핵심 생산 거점인 유타 사업장 증설에 나선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과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맞물리며 북미 배전기기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현지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시장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LS일렉트릭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유타주 시더시티에 있는 현지 공장 ‘LS일렉트릭 유타’에서 증설 기공식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총 25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증설은 기존 1만3223㎡(약 4000평) 규모 생산시설에 6만6115㎡(약 2만 평)를 추가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번 투자의 핵심은 미국 내 하이엔드 전력 솔루션 생산 기반 확보다. 신규 공장

이 완공되면 LS일렉트릭 유타의 배전반 생산능력은 연간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북미 전력기기 수요 증가에 맞춰 현지 공급 능력을 키우고 납기 대응력도 높일 수 있게 된다. LS일렉트릭은 북미 배전사업 강화를 위해 2022년 630만달러(약 77억 원)를 투자해 미국 배전반 제조업체 MCM엔지니어링 II를 인수했다. 이후 지난해 초 1차 증설을 통해 제2공장을 준공하고 생산능력을 3배로 늘렸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가며 현지 사업 기반을 다졌다. /왕관희 기자 wkh@